

21일부터 등교수업 재개... 원격수업 쌍방향 소통 강화

2학기 초·중·고 학사운영 발표

수도권 지역 부분 등교 적용
주 1회는 쌍방향 원격수업
SNS 등 활용 수업내용 소통

오는 21일부터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부분 등교수업을 재개한다. 수도권 지역은 내달 11까지 유치원 및 초·중학교 1/3 이내, 고등학교 2/3 이내로 부분 등교하는 등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취해진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내달 11일까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은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교 밀집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는 지난 14일 원광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내용을 담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른 유·초·중·고등학교 학사 운영 방안'과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치원 및 초·중학교 1/3 이내...고등학교는 2/3 이내 등교

고3을 제외하고는 전면 원격으로 진행되던 수업이 오는 21일부터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부분 등

교수업으로 진행된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다.

등교수업은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1/3 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교육 당국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적용해 이

런 부분 등교 방안을 적용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중대본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표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해 고3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 이달 20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등교수업이 재개되는 21일부터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8일 사이의 한 주간 수업도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함께 적용한다.

비수도권 지역도 10월 11일까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교 밀집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원격수업 중 모든학급 실시간 조·종례 운영...1차시당 수업 시간 엄수

원격수업의 허점으로 꼽혀왔던 교사와 학생 간 소통 강화방안도 내놔다. 우선,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한다.

교사는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매일 학생의 출결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해

야 한다. 당일 원격수업 내용을 주제로 소통하는 것도 권고 사항이다.

부득이하게 미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전화 또는 개별 SNS 등을 통해 조·종례 내용을 전달하는 등 특이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서는 원격수업 운영 시 학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소 주 1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물론, 교사는 콘텐츠 활용 수업 중 실시간 대화창 등을 통해 학생에게 환류하는 등 학생과의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

원격수업 시 1차시당 수업 시간도 엄수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조성연 과장은 "특히, 원격수업 시 1차시당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의 교육 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다만, 교사는 원격수업 유형에 따라 과제 수행 및 피드백 시간,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준비 시간 등을 포함해 단위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대학생 60% "1학기 등록금 반환 다 못받아" 비대면 채용 그림자... "IT기기 비용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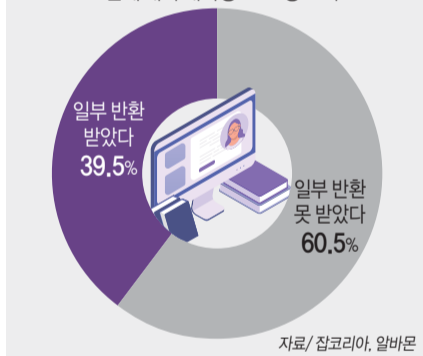
알바몬-잡코리아 4022명 대상 설문 반환 받은 금액 등록금의 7% 수준

1학기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등록금 일부를 반환 받은 대학생이 39.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상에 달하는 67.9%는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알바몬이 잡코리아와 함께 국내 4년제대학 대학생 4022명을 대상으로 '1학기 원격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일부 반환 여부와 2학기 휴학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먼저 1학기 대학 원격수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의 67.9%가 '1학기에 온라인 원격수업만 진행했다'고 답했다. '온라인과 오프라

대학생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 여부



인 수업을 병행했다'고 답한 대학생은 32.1%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만족도는 낮았다. 설문조사 참여 대학생 75%가 '원격수업으로 인해 수업의 내

용 등 만족도가 낮아졌다'고 답했다. '오프라인과 별 차이 없다'고 답한 대학생은 20.7%로 상대적으로 적었고, '수업의 내용 등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자는 4.3%로 극소수에 달했다.

'1학기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대학 등록금의 일부가 반환됐다' 조사한 결과에서는 '반환 받지 못했다'는 대학생이 60.5%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일부 반환 받았다'는 대학생은 39.5%로 5명중 약2명 정도에 달했는데, 이들이 반환 받은 금액은 1학기 등록금의 평균 7% 수준으로 많지 않았다. 대학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 335만원(* 대학 알리미 기준 2020년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평균 23만5000원 정도 반환 받은 것이다. /이현진 기자

PC응시 준비에 최대 210만원 들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채용전형이 늘어난 가운데, 구직자 3명 중 1명은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1년간 구직경험자 571명을 대상으로 '구직자 비대면 채용 경험 조사'를 주제로 조사한 결과다.

설문에 참여한 구직경험자 가운데 비대면 채용전형을 치러 본 비율은 25.9%로, 이들에게 실제 응시경험에 대해 의견을 묻은 결과 63.0%는 '부담됐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온라인전형 응시 노후 부족(28.2%) ▲서버 접속 및 불안정 우려(26.5%) ▲(이 외)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 우려(23.2%) 등이 꼽혔다. PC로 시험을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제 기량

을 발휘하지 못했거나, 응시와 동시에 관리감독 측 모니터링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특히 응시과정에서 변수발생시 스스로 제어해야 하는 점 등 비대면, 온라인 채용전형이 낮은 이유들이 전해졌다.

또한 '기기 준비 비용'(21.5%) 역시 부담이었다. 필기전형의 경우 모바일이 아닌 PC응시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구비가 필요하다. 이 외 별도의 태블릿 PC, 화상카메라, 마우스, 스피커 등 구직자들은 IT주변기기 환경을 갖추며 달라진 응시환경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을 달래고 있었다. 구입비 총계는 최대 210만원에 달한다. 코로나19 확산된 온라인 채용 이면에 구직자들의 비용부담이 자리하는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1%이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SW중심사업단 'SW·AI 메이커톤' 진행

세종대SW중심사업단은 '제1회 세종대학교 SW·AI 융합 메이커톤'을 진행한다.

메이커톤은 '만들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다양한 분야의 메이커들이 팀을 이뤄 주어진 주제에 맞는 사물을 만드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대양AI센터의 콜라보랩 장비를 이용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융합형 결과물 제작을 주제로 창의적 사고를 콜라보랩의 장비들로 직접 구현하고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접수는 9월 18일까지다. 본선 진출자는 9월 25일에 발표되며, 11월 6일 중간 발표회, 11월 27일 최종발표 및 시연회로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동국대, 내달 '1회 서울국제명상페스티벌'

동국대가 내달 1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1회 서울국제명상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 '명상, 서울 ON'의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의료진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명상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다양한 명상법 소개에 중심을 두고 있다.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한다.

오는 10월 10일 서울 동국대 팔정도(중앙광장)에서는 본 페스티벌의 메인 행사인 '명상콘서트'가 열린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1부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우리들'이라는 주제의 명상 토크 콘서트가, 그리고 오후 7시에 시작되는 2부에는 '코로나 시대, 따뜻한 선율의 시

간'이라는 명상 음악 콘서트가 진행된다.

토크 콘서트에는 미국 우파야 젠 센터 선원장인 조안 할리팩스와 직무스트레스연구소 대표인 이동환 의사, 그리고 동국대 일산병원의 박완임, 이정화 간호사가 코로나 극복에 헌신하는 이들을 위한 명상을 소개한다.

콜로라도 크레스톤 명상연구센터의 앨런 윌리스와 서울시 코로나19 심리지원단장인 김현수 교수, 부산 건국중순은주 교사가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기 위한 명상'을 이어간다.

'2020 명상, 서울 ON'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2020 명상, 서울 ON'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관람하거나, 또는 ZOOM을 통한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한국산업기술대 소공인 교류 '소꿉친구' 첫 발

한국산업기술대 LINC+사업단 지역 협업센터가 시흥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센터와 소공인 교류프로그램으로 '소꿉(coop)친구'라는 지역특화활동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소꿉친구는 젊은 공대생과 숙련된 제조기술을 보유한 지역 소공인이 나이를 뛰어넘어 '격의 없이 함께 협력하는(co-operate) 친구'라는 의미로 기획됐다.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술교류워크숍 소꿉학교 운영비와 시제품 제작 재료비 등을 지원받으며, 재료구매 시 지역 내 소공인 생산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업을 이끄는 김명구 산기대 메카트로닉스교수는 "첨단장비로 실습하는 공대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손기술



광남정밀 권년택 대표(왼쪽)가 산기대 김동현·임수영·원용준 학생들이 제작한 부품을 살펴본 뒤 문제점을 자문 해주고 있다.

에 의한 뿌리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고, 소공인들께겐 자신들의 숙련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전수한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